

# 빈계지신(牝雞之晨)\*

-- 그 현상(現象)과 의미

장정해\*\*

## <目 次>

1. 머리말
2. 생물학적인 견지에서 살펴본 '牝雞之晨' 현상
3. 劉向, 京房, 班固의 해석
4. '牝雞之晨'의 의미
5. 마무리

## 1. 머리말

주 무왕(周武王)은 상(商)의 마지막 왕 주(紂)와 목야(牧野)에서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각지에서 원정 온 제후들과 많은 병사들을 향하여 말했다 “옛 사람들이 이르길 암탉은 아침을 알리지 않는다. 암탉이 아침에 운다면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상의 임금은 오직 부인의 말만 듣는다. (古人有言曰, 牝雞無晨, 牝雞之晨, 惟家之索. 今商王受惟婦言是用.)” 1)

당시 무왕은 전쟁의 대의명분을 세우기 위해 주(紂)의 과오를 열거하면서 주(紂)가 부도덕하여 천명(天命)을 잃었다고 비난하였다. 무왕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牝雞之晨, 惟家之索)”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 주(紂)의 도덕적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중국문화정보학부 교수

1) 《十三經注疏》本 《尚書》 卷11 《牧誓》 (臺北: 藝文印書館).

타락과 실정(失政)이 달기(妲己)에 의해서 야기되었음을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말은 주(周) 왕조가 일으킨 역성혁명(易姓革命)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전쟁을 앞두고 상왕(商王)과 무왕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제후들을 무왕의 편에 서게 하였으며 병사들의 사기를 드높여 무왕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은 애초에 동물 전조(前兆) 해석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간주된다.<sup>2)</sup> 무왕이 언급할 당시에 이미 여성의 참정을 비판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었는지 아니면 무왕이 처음으로 비유적으로 인용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당代人(當代人)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미 보편화된 인식이었음은 확실하다. 주 무왕의 언급 이후로 이 말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비판하는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빈계지신(牝雞之晨)’ 또는 ‘빈계사신(牝雞司晨)’이란 성어가 되어 유가 여성관의 기본 원리로서 오랫동안 동아시아 여성의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sup>3)</sup>

그렇다면 이 말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말의 근거가 되는 암탉의 성변화(性變化)는 자연계에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현상인가? 이 논문은 이러한 단순한 호기심어린 의문에서 출발한다. 여기서는 먼저 암탉의 성변화라는 생물학적인 변이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국고전에 나타난 암탉의 성변화 현상이 얼마나 사실적인 기초 위에 기록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빈계지신(牝雞之晨)’이 동아시아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는 금기적인 언어가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대(漢代) 유학자들 그 중에서도 이 말의 의미를 확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유향(劉向)과 경방(京房), 반고(班固)의 해석을 살펴보겠으며, 한대(漢代) 이후의 문헌 속에 나타나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고찰해 볼 것이다.

2) 朱天順, 《中國古代宗教初探》(臺北: 谷風出版社, 1986), p.126.

3) ‘牝雞之晨’: 이와 같은 의미로 ‘牝雞無晨’, ‘牝雞司晨’, ‘牝雞晨鳴’, ‘牝雞司旦’, ‘牝雞牡鳴’, ‘牝雞雄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唐代 이전에는 ‘牝雞之晨’이나 ‘牝雞無晨’이라고 했고, 《新唐書》《舊唐書》 이후에는 ‘牝雞司晨’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牝雞晨鳴’은 《顏氏家訓集解》〈治家〉에 ‘牝雞司旦’은 《隋書》〈高勳列傳〉, ‘牝雞牡鳴’은 《後漢書》〈楊震列傳〉, ‘牝雞雄鳴’은 《漢書》〈五行志〉와 《晉書》〈五行志〉 등에 보인다.

## 2. 생물학적인 견지에서 살펴본 '牝雞之晨' 현상

고대 중국사회에서는 재이(災異)를 왕의 실정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 해석했기 때문에 재이현상에 대한 통치계급의 관심은 지대했고, 이러한 관심 덕분에 중국문헌에는 자연계의 상도(常道)를 벗어난 현상에 대한 기록이 대량으로 수록되어 있다. 더욱이 한대 이후에는 사회 전반에 재이관념이 팽배되면서 천재지변이나 생물변이 현상들이 재이의 전조로 간주되었고 역사가들은 이를 사서(史書)에 고스란히 기록하였다.<sup>4)</sup> 중국의 역대 〈五行志〉를 살펴보면 다량의 암탉의 성변화 기록이 보이는데, 암탉의 성변화 현상도 정치적 사건과 연관되어 재이로서 해석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암탉은 새벽에 울지 않는다. 닭 중에서 아침을 알리는 것은 성체(成體) 수탉의 역할이다. 현대 과학에서는 암탉이 새벽에 울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암탉이 수탉으로 성전환(sex change)하였다고 설명한다.<sup>5)</sup> 암탉의 성전환현상은 자연계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오늘 날에는 실험적 연구로서 증명된 현상이다.

실험에 의하면 닭에게 옹성호르몬 테스트스테론을 인공적으로 주입한 결과 수평아리가 생후 며칠 만에 울었고 암탉은 수컷처럼 구애 동작을 보이면서 울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테스트스테론에 의한 성변이 현상은 비단 닭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다른 동물들에게도 나타난다.<sup>6)</sup> 또한 인공적이 아니라도 한쪽 난소가 제거된 닭이 유전적인 성과는 반대로 생식소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sup>7)</sup>

호르몬 변이에 의한 암탉의 성변이 현상은 흔하진 않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어서 과거 한국에서는 《高麗史》나 《朝鮮王朝實錄》

4) 漢代에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관료들도 의무적으로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異變들을 기록, 제출해야 하여서 前漢 시기만 해도 재이에 대한 기록이 史書에 3, 4백건이나 수록되어 있다. (마이클 로이 지음, 이성규 옮김, 《고대 중국인의 생사관》, 서울: 지식산업사, 1989, p. 101참고)

5) 吳裕成도 《酉鷄有吉》(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에서 이것이 일종의 '性反轉現象'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p.45)

6) 박시룡, 《동물행동학의 이해》(《대우학술총서》), 서울: 민음사, 1996), pp.114-119.

7) 《생명과학사전》(서울: 아카데미), pp.774-775.

등에 암탉의 성변화 현상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으며,<sup>8)</sup> 현대에도 이 현상은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보고되어 지고 있다. 다음은 2006년 4월 19일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내용이다

알까지 낳던 암탉이 수탉으로 성변환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 프레키라고 불리는 이 동물은 어느 날 아침 수탉처럼 울기 이전에는 8개월 동안 알까지 낳았다. 몇 주일 후에 이 닭은 진홍색 볏이 나고 턱 밑으로 아랫뺨이라고 하는 붉은 늘어진 살이 자라났으며 꼬리 깃털이 풍성하게 자라는 등 모든 수탉의 속성을 갖추었다..... 은빛레이스가 있는 와이언도트 암탉 프레키는 현재 매일 아침 동틀 때면 울고, 다른 수탉들을 공격하고 그의 오랜 암탉 친구들에게 구애를 하기도 한다. <sup>9)</sup>

“The sex-change chicken that crows”란 제목의 이 기사를 중국의 고전기록과 대조해보면 매우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면서 볏과 아랫뺨이 자라고, 꼬리 깃털이 길고 풍성해졌으며, 아침을 알리고 심지어는 암탉들을 따라다니는 등 외모와 기질이 수컷과 같아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漢書》〈五行志〉의 “알을 품기도 했었던 암탉이 점점 수탉이 되었다. 볏과 머느리발톱도 생겨났고 울기도 했으며 암탉을 거느리기도 했다. (雌雞伏子, 漸化爲雄, 冠距鳴將)”(3장 인용문 참고) 라는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양자가 거의 동일한 변화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고대 중국에서는 이를 재이(災異)와 연관시켜 하늘의 경고로 해석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를 호르몬의 이상에 의한 변화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뿐이다.<sup>10)</sup>

8) 한국 고대의 기록에 관해서는 박성래, 〈고려시기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이유〉(《한국과학사상사》, 서울: 유스북, 2005)를 참고할 수 있다.

9) 영국의 신문 《Daily Mail》 2006. 4. 19. 기사 “The sex-change chicken that crows”: “A sex-change chicken which started life as an egg-laying hen has turned into a crowing cockerel. The pet, called Freaky, spent eight months laying dozens of eggs until she crowed like a cock bird one morning. Over the next few weeks, she sprouted a scarlet comb, grew red flaps called wattles under her chin and tufted tail feathers - all attributes of cockerels..... Freaky, a silver-laced Wyandotte hen, now crows every sunrise, aggressively attacks other males and even tries to mate with his old female friends.”

10) 《데일리 메일》은 동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암탉의 성변화 발생 확률은 만분의 1 정도이며 이런 현상은 암탉의 난소에 이상이 생겨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 남아있는 난소가 정

이 밖에 2007년 5월 24일의 《Canadian Press》도 이와 유사한 사건을 적고 있다.<sup>11)</sup> 최근에는 TV 방송자료를 통해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경우를 생생한 화면으로 접할 수 있는데,<sup>12)</sup> 이를 통해 보면 암탉의 성변화 현상은 드물지만 자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의 변이(變異)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사서에서는 재이의 해석에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서 이 변이 발생하면 매우 상세하게 그 상황을 기록하였는데, 암탉의 성변화 현상도 이러한 차원에서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기록하였다. 한대(漢代)부터 청대(清代)에 이르기까지 역대 문헌에 기록된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암탉의 성변화 특징이 “울음소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몸의 깃털이 다 수컷과 같았으나 머리의 뿔만 아직 변하지 않았다.(一身毛皆似雄, 但頭冠尙未變.) 《後漢書》 〈五行志〉<sup>13)</sup>

날개를 흔들면서 울고 암탉을 거느렸으나 깃털은 변하지 않았다.(奮翼鳴將, 獨毛羽不變) 《晉書》 〈五行志〉<sup>14)</sup>

울기는 했으나 머느리발톱이 없었다....뿔과 머느리발톱이 엄연했으나 울음소리만 약할 뿐이었다.(能鳴, 無距.....冠距儼然, 唯啼聲微弱.) 《清史稿》 〈災異志〉<sup>15)</sup>

이상의 기록에서 우리는 암탉이 수탉이 되었을 경우에 외형상으로 깃털, 발톱, 뿔 등의 변화가 관찰되고 울음소리, 암탉을 거느리는 등 행동양식의 변화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때론 그 변화 모습이 일정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精巢)로 바뀌면서 발생한다고 했다. (위의 주)

11) 《Canadian Press》 2007. 5. 24. 기사 "Eastern India village reports rare case of hen turning into a cock" 에서도 암탉이 수탉으로 성변환된 사건을 적고 있다.

12) SBS 《생방송투데이》, 2007. 6. 21. "수탉이 낳은 알이 있다" 와 SBS "TV동물농장" 2008. 4. 8. "아빠가 아이를 낳는 동물도 있나요?" 등의 방송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3) 新校本, 《後漢書》 〈五行〉 一, p.3273.

14) 新校本, 《晉書》 〈五行〉 上, p.827.

15) 新校本, 《清史稿》 〈災異〉 三, p.1589.

아마도 성호르몬 분비의 과다에 의한 개체의 각기 다른 변화모습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 문헌에는 이러한 변화모습을 자세히 기록하여 재이론적인 시각에서 이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 문헌에는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현상에 비하여 발생빈도가 매우 낮지만 수탉의 암탉화 현상도 적고 있다. 명대(明代)의 문헌인 《淮安府志》를 살펴보자.

홍치 무오(1498)년에 신성 오상의 무찌 집에서 집을 짓고자 들보를 올렸다. 흰 수탉이 들보 위에서 울어대며 알 하나를 낳았는데 매우 단단하였다. 가져다 불전에 공양하니 물로 변하였다. (弘治戊午, 新城午尙武家, 起屋上梁, 白雄鷄唱于梁上, 生一卵, 堅甚, 取供佛前, 化爲水)<sup>16)</sup>

이것은 실제로 수탉이 알을 낳은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이상으로 수탉으로 성 변화한 암탉이 알을 낳은 것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 날에도 외형은 수탉이나 여전히 난소가 있는 암탉이 알을 낳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이 경우 수탉이 낳은 알은 크기가 메추리알만하고 노른자가 생성되지 않아서 깨보면 마치 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이 위의 내용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sup>17)</sup>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되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宋史》〈五行志〉에서는 “무원현 장촌 민가에서 암탉이 수탉이 되었는데 닭을 죽여 삶으니 벗과 며느리발톱이 있었으나 배속에는 알을 품고 있었다. (婺源縣張村民家雌雞化爲雄, 烹之, 形冠距而腹卵孕)” 라는 기록이 있는데, 위의 기록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up>18)</sup>

이 밖에도 〈五行志〉를 비롯한 중국의 역대 문헌에 기록된 암탉의 각종 변이

16) 《古今圖書集成》〈曆象彙編·庶徵典〉第一百六十八卷‘雞異部紀事’

17) 주 12 참고. 특히 “TV동물농장” 방송자료에서는 수탉의 내부를 X-ray 촬영한 결과 알을 낳은 수탉이 같은 수컷이나 속은 암컷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알도 무정란으로서 병아리로 부화할 수 없는 알임을 밝히고 있다.

18) 新校本, 《宋史》〈五行〉三, p.1431. 이 외에도 《清史稿》〈災異〉三에는: “16년 송명의 민가에서 수탉이 알 두 개를 낳았다. 18년, 진택의 민가에서 수탉이 알을 낳았다. (十六年, 崇明民家雄雞生二卵. 十八年, 鎮澤民家雄雞生卵.)” 라는 기록이 있다. p.1588.

현상들은 현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매우 신빙성이 높아서 이러한 기록들이 상당 부분 현실에 근거를 두고 기록되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과거에는 제이론의 시각에서 해석되어졌거나 괴담으로 여겨졌던 각종 동물의 변이 현상과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들도 해석 부분을 걷어내고 보았을 때 과학 자료로서 손색이 없어서 향후에 그 가치가 재평가 되리라고 기대한다.<sup>19)</sup>

### 3. 劉向, 京房, 班固의 해석

‘빈계지신(批雞之晨)’은 주무왕의 발언 이래 점차 여성의 참정을 비판하는 비유적인 언어로서 정치와 연관되어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 말이 정작 빈번히 사용되고 본격적으로 여성의 참정과 발언권 통제의 대표적 용어가 된 것은 한대(漢代)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대 유학자들의 해석에 힘입은 바가 크데 특히 유향(劉向)과 경방(京房), 반고(班固)의 해석이 후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漢書》 〈五行志〉는 ‘빈계지신’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선제 황룡 원년 미양전의 가축우리 안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 깃털이 변하였으나 울지 않고, 암탉을 거느리지도 않았으며 머느리발톱도 없었다. 원제 초원 연간에 승상부 사가에서 알을 품기도 했었던 암탉이 점점 수탉이 되었다. 벼과 머느리발톱도 생겨났고 울기도 했으며 암탉을 거느리기도 했다. 영광 연간에 빨이 난 수탉을 바친 자가 있었다. 경방의 《역전》에서 “닭은 때를 아는 자이다. 때를 아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경방이 자기가 때를 안다고 했으니 무서워한 것은 당연하다. 유향은 경방이 닭점을 잘못 쳤다고 여겼다. 닭은 작은 짐승이다. 시간을 관장하고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하니 소인이 정권을 잡을 상이다. 이 말은 낮은 신분의 신하가 임금의 위엄을

19) 물론 제이 기록 중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의로 조작된 기록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철, 〈한대 제이설의 일고찰〉 (《동아연구》 제 4집, 1984)을 참고.

잡고 흔들면 정사를 해친다는 소리로 석현의 예와 같다. 경년 원년에 석현이 죄를 지었으니 이는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또는 석현 따위 때문에 일어났을 리가 있나? 라고 한다. 옛날 무왕이 은을 정벌할 때 목야의 들판에서 맹서하며 말하길 “옛 사람들이 이르길 ‘암탉은 아침을 알리지 않는다. 암탉이 아침에 운다면 집안이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상의 임금 은 오직 부인의 말만 듣는다.” 라고 했다. 이로 보건대 황룡, 초원, 영광 때에 닭이 변한 것은 국가의 점이고 후비의 상이다. 효원왕후가 후에 감로 원년에 남아를 출산하여 태자로 세웠다. 비는 왕금의 딸이다.

황룡 원년에 선제가 붕어하시고 태자가 즉위했으니 원제이시며 왕비는 장차 황후가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해에 암탉이 수탉이 되었으니 명백히 그 점괘는 정궁을 가리키는 것이다. 울지 않고 거느리지 않고 머느리발톱이 없다는 것은 위치는 귀해지기 시작했으나 존귀함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제 초원 원년에 장차 왕비를 황후로 봉하고자 먼저 첩여로 삼고 3월 계묘일에 서(書)를 내려 말하길 “첩여의 아버지가 승상 소사 왕금을 양평후로 봉하고 벼슬을 특진한다.” 라고 했다. 병오일에 첩여를 황후로 삼고 이듬해 정월에는 황후의 아들을 태자로 삼았다. 그러므로 승상부 사가의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것은 승상 소사의 딸에 관한 점괘이다. 알을 품은 것은 아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벗과 머느리발톱이 생기고 수탉처럼 울며, 암탉을 거느리는 것들은 존귀함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영광 2년에 양평후 왕금이 죽고 그의 아들 왕봉이 직위를 세습하여 시중위위가 되었다. 원제가 돌아가시고 태자가 즉위하니 바로 성제이다. 황후가 황태후가 되고 황후의 동생 왕봉이 대사마대장군 영상서사가 되니 임금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실 것이 없었다. 왕씨의 권력이 왕봉한테서 나오니 왕봉이 즉위할 무렵 수탉이 빨이 난 것이다. 위엄을 만들어 임금을 능멸하고 해쳤으며 나라를 위태롭게 한 것은 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뒤로 권력이 세습되어 왕망에 이르러 천하를 찬탈했고 왕망이 즉위한 지 5년 만에 황태후가 죽었으니 이는 그것의 효과일 것이다.

경방 《역전(易傳)》에는 “현자가 어지러운 세상에 거하여 때를 아는 자는 다칠 것이다. 또한 여러 무리가 권세를 휘두를 때를 당하면 요사한 닭이 빨이 날 것이다. 닭이 빨이 나면 임금이 고독할 것이다.” 라고 했으며, 또 “부인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암탉이 수탉처럼 울면 임금이 영화롭지 못하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경방은 자기도 그 점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宣帝黃龍元年, 未央殿輅輪中雌雞化為雄, 毛衣變化而不鳴, 不將, 無距. 元帝初元中, 丞相府史家雌雞伏子, 漸化為雄, 冠距鳴將. 永光中, 有獻雄雞生角者. 京房《易傳》曰: “知時, 知時者當死” 房以為已知時, 恐當之. 劉向以為房失雞占. 雞者小畜, 主司時, 起居人, 小臣執事為政之象也. 言小臣將秉君威, 以害正事, 猶石顯也. 竟寧元年, 石顯伏辜, 此其效也. 一曰, 石顯

何足以當此? 昔武王伐殷, 至于牧壘, 誓師曰: “古人有言曰 ‘牝雞無晨, 牝雞之晨, 惟家之索.’ 今殷王紂惟婦言用.” 絲是論之, 黃龍, 初元, 永光雞變, 乃國家之占, 妃后象也. 孝元王皇后以甘露二年生男, 立爲太子. 妃, 王禁女也. 黃龍元年, 宣帝崩, 太子立, 是爲元帝. 王妃將爲皇后, 故是歲未央殿中雌雞爲雄, 明其占在正宮也. 不鳴不將無距, 貴始萌而尊未成也. 至元帝初元元年, 將立王皇后, 先以爲婕妤. 三月癸卯制書曰: “其封婕妤父丞相少史王禁爲陽平侯, 位特進.” 丙午, 立王婕妤爲皇后. 明年正月, 立皇后子爲太子. 故應是, 丞相府史家雌雞爲雄, 其占卽丞相少史之女也. 伏子者, 明已有子也. 冠距鳴將者, 尊已成也. 永光二年, 陽平頃侯禁薨, 子鳳嗣侯, 爲侍中衛尉. 元帝崩, 皇太子立, 是爲成帝. 尊皇后爲皇太后, 以后弟鳳爲大司馬大將軍, 領尙書事, 上委政, 無所與. 王氏之權自鳳起, 故於鳳始受爵位時, 雄雞有角, 明視作威顛君害上危國者, 從此人始也. 其後群弟世權, 以至於莽, 遂篡天下. 卽位五年, 王太后乃崩, 此其效也. 京房《易傳》曰: “賢者居明夷之世, 知時而傷, 或衆在位, 厥妖雞生角. 雞生角, 時主獨.” 又曰: “婦人顛政, 國不靜, 牝雞雄鳴, 主不榮.” 故房以爲己亦在占中矣) 20)

이 기사의 내용은 선제 황룡 원년(宣帝黃龍元年: B.C.49) 미양전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원제 초원(元帝初元) 연간 (B.C. 48-44)에 승상부의 암탉이 수탉이 된 것과 영광(永光) 연간(B.C. 43- 38)에 수탉이 뿔이 난 세 가지 변이현상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간은 전한(前漢) 원제(元帝: B.C. 49- 33재위)가 즉위하고 다스리던 때로서 중국 역사상으로 환관과 외척의 득세와 부패가 가장 심했던 시기였으며 재이(災異) 관념이 팽배해 있던 때였다.<sup>21)</sup>

《漢書》 〈五行志〉의 저자 반고(班固: 32-92)는 후한(後漢) 초기 사람으로 천인감응(天人感應)의 신비학설인 오행재이설(五行災異說)을 사회 현상의 규율로 삼고 《漢書》를 서술하였는데<sup>22)</sup> 이러한 서술 태도는 〈五行志〉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반고는 본문에서 이 현상들에 대한 유향(劉向: B.C. 77?- B.C. 6)과 경방(京

20) 新校本, 《漢書》 〈五行志〉 第七中之上, pp.1370-1371.

21) 이 시기 외척의 상황에 대해서는 김엽, 〈前漢의 外戚〉 (《대구사학》, 1969), p.19 참고.

22) 白壽彝, 〈劉向和班固〉 (《中國史學史論集》, 中華書局, 1999), pp. 116-119. (김경호, 〈《사기》·《한서》에 서술된 경제관과 그 사상적 배경〉, 《중국사연구》 제 32 집, 2004, 10, p.3. 주20에서 재인용.)

房(B.C. 77-B.C. 37)의 견해를 수록하였다. 이 현상들에 대해 경방은 “닭은 때를 아는 자이다. 때를 아는 자는 죽을 것이다. (知時, 知時者當死)” 라고 하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전조라고 풀이하였다. 유향은 경방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소인이 정권을 잡을 상(小臣執事爲政之象也)” 이라고 하여 당시 석현(石顯) 과 같은 무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한 재이현상으로 풀이했다.

유향은 원제(元帝), 성제(成帝) 시기에 음양재이설(陰陽災異說)에 입각한 정치적인 주장을 펼쳤으며, 종친으로서 외척과 환관의 권력진행을 막으려 힘썼던 인물이었으며, 《京氏易傳》으로 유명한 경방은 원제 시기의 역학자로서 재이사상(災異思想)에 밝아서 원제의 총애를 받았으나 석현 등의 반대세력에 의해 살해당한 인물이다.<sup>23)</sup> 전한 말기에는 재이를 특정한 정치적인 사건과 결부시켜 해석하곤 하였는데, 특히 원제 때의 재이 문제는 국가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학인(學人)들의 정치비판에 활용되었다.<sup>24)</sup> 유향과 경방은 마침 이 시기를 살면서 당시에 ‘석현의 무리’와 같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정적(政敵)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나 또는 그 인물들로 인해서 자신이 장차 해를 입을 것에 대한 전조로서 암탉의 변이 현상을 해석했던 것이다.<sup>25)</sup>

반고는 유향과 경방의 해석을 인용한 것 이외에도 후한(後漢) 사람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다시 분석하였다. 그는 《尚書》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는 구절을 언급하면서 황룡, 초원, 영광 때에 닭이 변한 것은 “국가의 점이고 후비의 상이다. (乃國家之占, 妃后象也)” 라고 하였고 암탉을 왕 황후(王皇后)에 비유하였다. 반고는 황룡 원년에 암탉이 수탉이 되었으나 울지 않고 거느리지 않고 며느리 발톱이 없었다는 것은 이 때 왕비(王妃)가 장차 황후가 되려고 할 때여서 위치는 귀해지기 시작했으나 존귀함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원제 초원 원년에 승상부 사가의 말을 품은 적도 있었던 암탉이 수탉이 되었는데 벗과 며느리발톱이 생겨나고 수탉의 울음을 냈으며 암탉을 거느렸다고 한 것은 당시에

23) 윤태현, 〈京房 易 의 易學史的 考察〉 (《周易哲學과 文化》 創刊號, 2003), pp.288- 290.

24) 김석우, 〈전한 元帝代 災異論과 儒敎政治〉 (《동양사학연구》 제 87집, 2004), p.48.

25) 劉向과 京房이 災異를 이용하여 石顯 등을 공격했던 상황에 대해선 김석우, 앞의 논문, pp. 54-66 참고.

왕 황후의 아들이 태자가 되고 황후의 존귀함이 이미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영광 연간에 뿔이 난 수탉은 성제가 즉위한 이후 황후가 황태후가 되고 황후의 동생 왕봉이 대사마대장군 영상서사가 되며 그 뒤 황태후의 일족인 왕망(王莽)에 이르러 한(漢)이 멸망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대는 중국역사상 외척의 정치참여가 가장 막강하였던 시기였다. 특히 전한 말기에는 왕 황후를 위시하여 왕씨 일족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여 황권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반고는 전통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한서》를 서술하면서 전대(前代)에 일어난 역사상 유례없는 외척이 왕조를 수립한 사례에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닭의 변이 현상을 당시의 정치적인 사건들을 연관시켜 재이로 규정짓고 또한 전한 멸망의 전조로 해석하여 그 변화 과정을 원제의 비인 왕씨가 황후가 된 때로부터 왕 황후의 일족인 왕망이 왕조를 찬탈하기까지의 과정에 대입시켜 서술하였다.

반고는 말미에 경방 《易傳》의 “부인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암탉이 수탉처럼 울면 임금이 영화롭지 못하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이 현상들을 왕 황후, 외척들과 연관시킨 자신의 견해가 타당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그는 “그러므로 경방은 자기도 그 점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것이다.(故房以爲己亦在占中矣)” 라고 논평하여 경방도 자신과 같이 이 현상들이 당시의 석현과 같은 세력들이나 황후, 외척 등의 정치참여와 연관되어 나타났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를 아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며 경방의 해석이 오류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반고의 이러한 분석으로 인해 <오행지>의 기사는 《상서》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이치가 역사상 실제로 구현된 예가 되었고, 이 기록은 마치 역사의 경고처럼 역대의 제왕들과 후비들에게 전해진다.<sup>26)</sup> 《한서》 <오행지>의 기록은 후대의 역사서에서 암탉에 관한 변괴나 닭의 변화 현상을 설명할 때 전거로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26) 吳裕成은 《西鷄有吉》에서 批雞之晨의 관념이 《상서》 <목서>에서 발단하여 《한서》 <오행지>의 선업(渲染)을 거쳐서 이천년 동안 중국인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주3, p.44)

영제 광화 원년에 남궁 시중사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 의랑 채옹을 불러 물으니 대답하길: “선제 황룡 원년에 미양궁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는데.....”(靈帝光和元年, 南宮侍中寺雌雞欲化雄.....詔以問議郎蔡邕. 邕對曰: “宣帝黃龍元年, 未央宮雌雞化為雄.....”) 《後漢書》 〈五行志〉 27)

정시 원년 여름에 전사 사원현이 네다리에 네 날개를 가진 닭을 바쳤다. 산기시랑 조옹을 불러 최광에 물어보도록 했다. 최광이 표를 올려말했다. “신이 삼가 《한서》 〈오행지〉 를 살펴보니 선제 황룡 원년에 ..... ” (正始元年夏, 有典事史元顯獻四足四翼雞, 詔散騎侍郎趙邕以問光. 光表曰: “臣謹案漢書五行志宣帝黃龍元年.....”) 《北史》 〈崔光子勵列傳〉 28)

송 문제 원가 12년 화림원의 닭이 점차 수탉으로 변했다. 후에 효무제가 즉위하자 황태후의 명령이 밖으로 행해짐이 마치 한 선제 시기에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애제 때에 원제의 황후가 정치에 간여한 것과 같다. (宋文帝元嘉十二年, 華林園雌雞漸化為雄. 後孝武即位, 皇太后令行于外, 亦猶漢宣帝時, 雌雞為雄, 至哀帝時, 元后與政也.) 29)

이 외에도 후대의 많은 문헌들이 ‘빈계지신’ 현상을 설명하면서 《한서》 〈오행지〉 를 거론했는데,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닭의 성변화 현상뿐만 아니라 닭의 각종 기형 현상 및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이 책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기록된 유향과 경방의 해석도 후대인들이 널리 인용하는 바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빈계지신’에 대한 후대의 해석이 《한서》의 해석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최근까지 이르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4. ‘牝雞之晨’의 의미

《한서》 〈오행지〉 이후로 이 말은 여성이나 외척들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거

27) 新校本, 《後漢書》 〈五行〉 一, pp.3273-3274.

28) 新校本, 《北史》 〈崔光子勵列傳〉, p.1616.

29) 新校本 《宋書》 〈五行〉 一, pp.892-893.

나 소인배들의 권력독식을 비난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현대 이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 말이 갖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다.

### 1) 여성과 외척의 정치참여

앞서 언급한 대로 무왕이 달기(妘己)를 지목해 상의 멸망을 초래하고 주를 타락시킨 장본인으로 몰아세운 이후에 암탕이 올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비난하는 의미가 되었다. 무왕의 발언은 상(商)의 통치에 여성이 실제로 관여했다는 증거로 여겨지기도 하며,<sup>30)</sup> 왕조 멸망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이른바 여화(女禍) 관념의 시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한대의 유가들은 세상의 이치를 음양(陰陽)의 이분법으로 나누어 군주는 양(陽)이고 신하가 음(陰), 아버지는 양(陽)이고 아들은 음(陰), 남편은 양(陽)이고 아내가 음(陰)이라고 규정짓고<sup>32)</sup> 음양의 구분 논리에 위배되는 모든 현상들을 불길하다 여겼는데, '빈계지신'을 음과 양이 바뀐 현상으로 여겨서 불길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전한 말기 《한서》 〈오행지〉에서 반고를 비롯한 유가들이 암탕이 수탉으로 변화하는 사건을 왕 황후의 등장과 왕망 등 외척에 의한 한(漢) 왕조 멸망의 전조로 간주한 이래 빈계지신은 황후(황태후)나 외척에 의한 권력 전횡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더욱이 후한(後漢) 말기나 남북조시기에 이르러서는 어리거나 무능한 군주가 재위하여 황후(황태후)나 외척들이 집권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용어가 문헌상에 더욱 빈번히 나타난다. 이 시기의 상황에 대해 《隋書》 〈后妃列傳〉序言

30) 王奇偉는 〈從北雞之晨現象看商代婦女的社會地位〉 (《殷都學刊》 2000년 第1期)에서 은나라에서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았으며 정치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였다.

31) 劉詠聰, 〈漢代婦人言色亡國論之發展〉 (《中華文史論叢》, 上海古籍出版社, 1992) 참고. 이숙인, 〈여성 배제의 관념: 聖母論과 女禍論〉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서울: 여이연, 2005) 참고.

32) (漢) 董仲舒, 《春秋繁露》. 〈基義〉: “君臣夫子夫婦之義, 皆取諸會陽之道. 君爲陽, 臣爲陰, 父爲陽, 子爲陰, 夫爲陽, 妻爲陰.” (臺北: 世界書局, 景印摛藻堂《四庫全書薈要》 246子部第1冊, 1987)

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무릇 음양이 처음 나뉘면서 건곤의 위치가 정해졌는데 군신의 도가 여기서 분명해지고 부부의가 존재하게 되었다.....매희와 달기가 하나라와 은나라를 망치고 포사와 조비연 자매가 주나라와 한나라의 화를 생기게 했다. 이에 진나라와 송나라를 거치니 이와 같은 무리가 많아졌다. 모두 총애를 받아 지위가 높아졌으나 덕을 쌓지 않고 음란한 짓만 했다.....관저의 덕은 천년을 가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빈계지신의 일은 여러 나라에서 연신 들린다. (夫陰陽肇分, 乾坤定位, 君臣之道斯著, 夫婦之義存焉.....妹妯致夏殷之變, 褒趙結周漢之禍. 爰歷晉宋, 實繁有徒. 皆位以寵升, 榮非德進, 恣索. 行淫僻.....睢鳩之德, 千載寂寥, 牝雞之晨, 殊邦接響.)<sup>33)</sup>

이후의 유가들은 역대 왕조의 멸망이 여성이나 외척의 참정으로 인해서 생겼음을 강조하면서 후비(后妃)들에게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음양의 정해진 본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한 말부터 위진남북조 시기까지 여성이나 외척의 집권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겪은 후에 이들의 참정에 대한 비난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권리가 가장 컸다는 당대(唐代)에도 여성의 직간접적인 국정간섭은 환영받지 못했는데 당대의 덕망 높았던 장손황후(長孫皇后)는 당 태종(唐太宗)이 간혹 국가 대사를 의논하려고 하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가당합니까?” 라며 사양했다.<sup>34)</sup>

이렇듯 후대에는 여성 스스로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것을 지키는 여성을 지혜로운 여성으로 역사서는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중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황제가 되어 통치했던 ‘武則天 시기’는 어떠했을까? 《朝野僉載》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당 문명 이후에 천하의 여러 주에서 수탉으로 변한 암탉들을 진상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그 중의 반은 이미 수탉으로 변한 것들이고 나머지 반은

33) 新校本《隋書》〈后妃列傳〉‘序言’, p.1105.

34) 新校本《新唐書》〈后妃列傳〉上: “與帝言, 或及天下事, 辭曰: “牝雞司晨, 家之窮也. 可乎?” (p. 3470)

아직 다 변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武則天이 제위에 오를 징조이다. (唐文明已後, 天下諸州, 進雌雞變爲雄雞者甚多. 或半已化, 半未化, 乃則天正位之兆)<sup>35)</sup>

武則天은 영휘(永徽) 6년(655) 황후로 책봉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당을 통치했으며 고종(高宗)의 사후부터 사망 때(684 - 705)까지 독자적으로 집권을 했다. 이 글의 배경이 된 문명 원년(文明元年: 684)에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는데 태자였던 고종의 여섯째 아들 현(賢)이 자살했고, 중종(中宗)이 폐위되었으며 예종(睿宗)이 즉위하는 등 황실에 큰 변고가 있었다. 위에서 보면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일들이 갑자기 대량 출현했으며 그 중 반은 이미 수탉으로 변했고 반은 아직 다 변화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武則天이 실질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제위에 오를 조짐이 있었음을 민중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sup>36)</sup> 문명 연간 이후에 벌어진 암탉의 성변화 상황에 대해서 《新唐書》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수공 3년(垂拱三年: 687) : 칠월 정묘일에 기주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 (七月丁卯, 冀州雌雞化爲雄)

영창 원년(永昌 元年: 689) : 정월.....기미일에 낭주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 (正月.....己未, 朗州雌雞化爲雄. )

영창 원년(永昌 元年) : 팔월.....을미일에 송주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 (八月.....乙未, 松州雌雞化爲雄)<sup>37)</sup>

이상의 기록에서 우리는 武則天 시기에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현상이 어느 시기보다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암탉으로 변한 수탉들을 진상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일로서 여성의 참정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武則天의 제위 승계를 부추겼다는 점이니, 당시 이 말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武則天이 몰락하고 여성 황제 시기가 막을 내리게 되자 武則天의 집권

35) (宋) 李昉等, 《太平廣記》(臺北: 文史哲出版社, 1981) 卷461, p.3785.

36) 줄고, 《武則天 설화에 나타난 예언과 징조》(《중국어문학지》 제14집, 2003, 12), p.128 참고.

37) 新校本 《新唐書》 〈則天順聖武皇后〉, pp.88-89.

사실은 다시 유가들의 거센 비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舊唐書》는 이 시기를 평가하여 “초기에는 빈계사신이었으나 결국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주었다. (初雖牝雞司晨, 終能復子明辟)”<sup>38)</sup> 라고 했고, 武則天의 집권과 칭제했던 상황을 일러 “빈계사신(牝雞司晨)”이라고 몰아붙였다. 후대의 유가들은 여성이 집권한 시기, 특히 武則天이 집권한 시기를 일러서 ‘빈조(牝朝)’라고 했는데 이도 같은 의미로서 여자가 국정을 전단(專斷)함을 비판하는 의미가 된다.

## 2) 신하의 집권이나 찬탈

공자가 일찍이 《論語》에서 ‘여자(女子)’와 ‘소인(小人)’을 같은 부류로 여겨 함께 거론한 이후부터 유가들은 여성과 소인을 동류로 간주하여 언급하곤 하였다.<sup>39)</sup> 한대(漢代)의 유가들은 이들의 속성이 모두 ‘음(陰)’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여기고 양자를 동일한 개념선상에서 함께 논의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대의 유향(劉向)은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것을 ‘소인이 정권을 잡을 상’이라고 하여, 이를 양(陽: 군주)과 음(陰: 신하, 소인)의 입장이 뒤바뀐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앞서 이 현상을 음과 양이 바뀌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여성이나 외척들이 집권할 전조로 여긴 것과 동일한 논리라고 하겠다. 이후에 이 말은 신하가 왕권을 무시하고 국정을 전횡하거나 찬탈 혹은 반란을 일으킬 전조나 비유로 간주되었다. 《後漢書》와 《晉書》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영제 광화 원년에 남궁의 시중사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신이 추측컨대 머리는 으뜸으로 임금의 상인데 지금 닭의 온몸이 변했으나 머리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주상께서 아시게 되었으니 이는 장차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나 성공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치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벼이 생겨서 우환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후에 장각이 난을 일으켜 황건적이라 칭하고 파괴를 일삼으니 사방이 부역에 시달

38) 新校本《舊唐書》〈則天皇后〉, p.133.

39) 《十三經注疏》本, 《論語》〈陽貨〉(臺北: 藝文印書館): “唯女子與小人, 爲難養也.”

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많았다. 임금의 정치가 개선하지 않으셔서 천하가 대란에 빠졌다. (靈帝光和元年, 南宮侍中寺雌雞欲化雄.....“臣竊推之, 頭, 元首, 人君之象; 今雞一身已變, 未至於頭, 而上知之, 是將有其事而不遂成之象也. 若應之不精, 政無所改, 頭冠或成, 爲患茲大.” 是後張角作亂稱黃巾, 遂破壞. 四方疲於賦役, 多叛者. 上不改政, 遂至天下大亂. )<sup>40)</sup>

원제 대흥 연간에 왕돈이 무장을 진압했을 때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 이는 하늘이 계시를 내려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능멸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후에 왕돈이 다시 서울을 공격했다. (元帝太興中, 王敦鎮武昌, 有雌雞化爲雄. 天戒若曰, 雌化爲雄, 臣陵其上. 其後王敦再攻京師. )<sup>41)</sup>

《後漢書》에서는 이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장각(張角)의 난’이 일어났음을 적고 있고, 《晉書》에서는 이것을 “신하가 임금을 능멸할 것(臣陵其上)”이라고 하여 장차 왕돈이 모반을 할 징조로 해석하였다. 왕돈은 동진(東晉) 시기 진동대장군(鎮東大將軍)을 지낸 인물로 원제 영창 원년(元帝永昌元年: 322년)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실패한다. 《後漢書》의 기록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완전히 수탉으로 변화하지 못한 암탉을 보고 장차 변란이 일어날 것이나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예견했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견해를 아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위나라 명제 경초 2년에 정위부의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으나 울지 않고 암탉을 거느리지도 않았다. 간보가 말하길 “이 해에 선제께서 요동을 평정하시니 백성들이 그에게 정치를 맡기려 하였으니 이것이 그 징조이다. 그러나 진의 세 임금은 신하의 신분으로 돌아가셨으니, 수탉이 울지 않고 거느리지도 않았던 것 또한 하늘의 뜻이다.” 라고 했다. (魏明帝景初二年, 廷尉府中雌雞化爲雄, 不鳴不將. 干寶曰 “是歲宣帝平遼東, 百姓始有與能之義, 此其象也. 然晉三后並以人臣終, 不鳴不將, 又天意也.” )<sup>42)</sup>

원흥 2년 형양에 암탉 한 마리가 수탉으로 변한 후 80일이 지나자 벗이 쭉거리던 일이 있었다..... 형양은 환현이 초에 나라를 세웠을 때 속해있던 곳이다. 환현이 제위를 찬탈한 후에 80일이 지나자 과연 패망했는데 이것이 그

40) 新校本《後漢書》〈五行〉一, pp.3273-3274.

41) 新校本《晉書》〈五行〉上, p.827.

42) 위의 주.

정조이다. (元興二年, 衡陽有雌雞化爲雄, 八十日而冠萎.....衡陽, 桓玄楚國之邦略也. 及桓玄篡位, 果八十日而敗, 此其應也.)<sup>43)</sup>

《晉書》의 두 기사는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후 변화 상태가 불완전한 것을 신하가 제위(帝位)에 도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황과 결부시켜 해석하고 있다. 위(魏)의 정권을 장악했던 사마씨(司馬氏) 삼부자(三父子) 즉 사마의(司馬懿: 179-251), 사마사(司馬師), 사마소(司馬昭)가 제왕의 권세를 가졌으나 끝내 제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일과 동진(東晉) 말기의 실권자이자 초(楚)나라(403~404)를 건국했던 환현(桓玄)이 오래가지 못하고 패망한 상황을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으나 불완전하게 변한 모습을 연관시켜 해석한 것이다. 《後漢書》 이후로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일이 전조로서 해석되어질 때 외형상이나 행동상의 변화 상황도 세밀히 묘사되곤 하는데, 불완전한 변화 모습을 사건이 실패할 전조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 여성이 투기하거나 집안일을 주도함

‘빈계지신’은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여성의 주도권을 경계하거나 투기 등의 행위로 여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를 비판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後漢書》 〈馮衍傳〉에 의하면 풍연의 아내 임씨는 투기가 심하여 여종이니 첩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sup>44)</sup> 풍연은 아내의 투기로 온 집안이 고통을 겪게 되자 처남에게 아래와 같이 편지를 보낸다.

재앙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인으로 인해서이다. 참언을 하는 자의 마음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질투하는 마음은 다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옛사람이 말한 큰 우환이 오늘 나에게 일어났구나. (亂匪降天, 生自婦人. 青蠅之心, 不重破國, 妒

43) 新校本《晉書》〈五行〉上, p.828.

44) 新校本《後漢書》卷二十八 〈馮衍傳〉: “풍연이 북쪽지방의 임씨를 아내로 맞았는데 투기가 심하여 여종이니 첩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 (衍娶北地任氏女爲妻, 悍忌, 不得畜媵妾). (p.1002)

嫉之情，不憚喪身。牝雞之晨，唯家之素，古之大患，今始於衍。)45)

풍연은 임씨가 성격이 사납고 질투가 심해서 첩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전처가 낳은 아들들을 학대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 임씨를 내쫓는다. 그는 처남 임무달(任武達)에게 재앙이 부인 때문에 생긴다고 하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尙書》의 구절을 인용하여 아내가 투기하는 것을 비난하였다. 《後漢書》 이후로 많은 문헌에서 이 말은 왕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여성이 투기를 하거나 성격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를 깰 때 비난하는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된다.

청(淸) 《管窺輯要》〈雞占〉에는 “암탉이 수탉의 울음소리를 내면 여자가 정국을 어지럽힌다. 만약 민가라면 처첩 간에 간사한 술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암탉이 새벽에 울면 그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다. (雌雞作雄鳴，女子亂政，若在人家，則妻妾姦謀，故曰，牝雞晨鳴，其家不榮。)”46) 라고 했는데 위의 관념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제(北齊)의 유학자 안지추(顏之推: 531-602)는 《顏氏家訓》에서 후손들에게 아래와 같은 가르침을 남긴다.

부인은 집에서 음식을 관장하여 오직 술과 밥, 옷을 만드는 일만 해야 한다. 나라에서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집에서는 집안일을 주장하면 안 된다. 만약 총명하고 재주와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고급에 통달하다면 남편을 보좌하고 그 부족함을 도와주도록 한다. 반드시 암탉이 아침에 우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婦主中饋，惟事酒食衣服之禮耳，國不可使預政，家不可使幹蠱，如有聰明才智，識達古今，正當輔佐君子，助其不足，必無牝雞晨鳴，以致禍也。 47)

안지추(顏之推)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집안에서 음식이나 옷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고 재능이 있어도 집안일을 주도해서는 안 되며 남편의 보좌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만약 여성이 정치를 하거나 집안에서 중요한 일을

45) 풍연이 처남 任武達에게 보낸 편지는 《後漢書》卷二十八 〈馮衍傳〉 주2 참고.

46) 《古今圖書集成》〈曆象彙編·庶徵典〉‘雞異部紀事’

47) 王利器, 《顏氏家訓集解》(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卷第一 〈治家〉 第五.

결정하게 되면 '빈계지신'의 화가 생긴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남북조 시기의 여성들이 활동범위를 가정 내로 제한받고 오로지 집안일과 남편의 보조 역할만을 하는 이른바 현모양처의 생활 방식을 강요당했음을 알 수 있다.

청(淸)의 저명한 학자 기윤(紀昀: 1724-1805)은 이 구절을 보면서 “맹자의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는가? 부인의 일은 시부모를 공양하고 옷을 만들며 다섯 끼니의 밥을 잘 짓고 술을 잘 빚는 일이다. '남편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라'라는 것은 암탉이 아침에 울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孟母不云乎, 婦人之職, 奉舅姑, 縫衣裳, 精五飯, 事酒漿而已. 助其不足, 卽司晨之漸也.)”<sup>48)</sup>라고 하여 남편을 보좌하는 일조차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일반 가정 내에서 여성의 투기나 외부 활동을 막고, 여성의 주도권을 경계하는 의미로서의 '빈계지신'은 향후 유교의 여성관을 대표하는 언어가 되었고, 오랫동안 동아시아 사회에서 여성의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4) 길조(吉兆)

중국 고전에서 드물지만 '빈계지신'의 현상이 길조로 쓰인 예도 있다. 《漢書》〈王莽傳〉은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가을 오위장군 왕기 등 열두 명을 을 파견하여 부명 42편을 천하에 반포하였는데 덕상 다섯가지와 부명 스물다섯, 복응 열둘 모두 사십이 편이다..... 부명은 우물에서 꺼낸 흰돌과 금궤의 서신 등을 말하며 복응은 암탉이 수탉이 된 일 등을 말한다. (秋, 遣五威將王奇等十二人, 班符命四十二篇於天下. 德祥五事, 符命二十五, 福應十二, 凡四十二篇.....符命言井石、金匱之屬. 福應言雌雞化爲雄之屬. )<sup>49)</sup>

48) 위의 주.

49) 新校本《漢書》〈王莽傳〉, p.4112.

이것은 시건국(始建國) 원년(元年: 서기 9년) 가을의 일로 왕망이 신(新:8-23)을 건국한 후 다음해의 일이다. 왕망은 자신이 황제가 된 것이 천명에 의해서 된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일을 복응(福應)으로 간주하여 길조로 여긴 것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신하가 임금의 자리를 찬탈하는 의미로 해석되었으니 신하에게는 길조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대(元代) 《嘉蓮燕語》에서도 이 현상을 길조로 간주한다.

오씨에게 신이 내렸다. 어떤 사람 집에 암탉이 울자 와서 물으니 대답하길 “암탉은 울지 않는데 울었다면 그 집에 재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다. 과연 큰 이익이 생겼다. (神降伍氏. 有雌鷄司晨者. 問之. 答曰: “批雞不鳴. 鳴則財生其家.” 果大利.)<sup>50)</sup>

암탉이 울면 그 집에 ‘재물이 생긴다’라는 것으로서 역시 길조로 해석되었다. 이상으로 빈계지신의 현상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짐을 살펴보았는데, 중국 문헌에는 암탉이 수탉으로 변화하지 않고 단순히 닭의 기형 현상이 나타나거나 수탉이 때가 아닌데도 우는 일들도 ‘빈계지신’과 같은 현상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sup>51)</sup>

## 5. 마무리

이상으로 살펴보건대 ‘빈계지신(批雞之晨)’이란 말은 매우 오랜 전통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의 시초는 암탉의 성변화(性變化) 현상으로서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연계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인 현상이다. 주 무왕(周武王)의

50) 同注 40.

51) 《晉書》〈五行〉上에는 효무 태원 13년 4월 기사에서 암탉이 오른쪽 날개가 없이 태어나거나 다리가 세 개인 기형 닭이 태어났을 때 京房의 말을 인용하여 임금이 여자의 말을 들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해석했고, 《新唐書》〈五行〉一에는 대종 광년(854) 9월 에 민가의 수탉이 암탉이 되어 알을 품는 일을 “왕실이 몰락할 상(王室將卑之象)”이라고 하면서 이 일이 漢 宣帝 시기에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현상과 같은 일이라고 하였다. (p.881)

발언 이래 이 말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비난하는 의미로 쓰였으며, 이후에는 한대(漢代) 유가들의 재이론적(災異論的) 시각에 따라서 여성이나 외척의 정치관여, 신하의 정권 장악이나 왕위 찬탈 등의 전조로서 해석되었다. 이후에는 일반 가정에서 여성이 투기가 심하거나 집안일의 주도권을 가질 때도 이 말을 써서 경계하였다.

일찍이 저명한 사회학자 J. 빅터 볼드릿지는 문화는 한 사회의 행위의 규범으로서 오랫동안 일정한 문화적 규칙에 의해 접하게 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받아들여지게 되고 자신들의 일부가 되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sup>52)</sup> ‘빈계지신(批雞之晨)’의 의미도 그 내용의 공평성 여부를 떠나서 오랫동안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사회에 전해오면서 이미 여성들에게 내면화(內面化)되고 행위의 규범이 되어서 무의식중에 여성들의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이 말은 한국 사회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로 전해져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속담이 되었다. 사실 이 말은 현재의 우리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나, 최근 한국에 나온 성차별적 언어 사용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아직까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sup>53)</sup>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사회문화 저변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인데, 이제는 이 말이 중국이나 한국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과거의 속담 사전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 〈參考文獻〉

- 《漢書》, 臺北, 鼎文書局.  
 《後漢書》, 臺北, 鼎文書局.  
 《晉書》, 臺北, 鼎文書局.

52) J.빅터 볼드릿지 지음, 이효재, 장하진 옮김, 《사회학 : 비판사회학의 입장에서》(서울 : 경문사, 1983), pp.81-83.

53) 이춘아, 김이선,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6) p.11.

- 《宋史》, 臺北, 鼎文書局.
- 《北史》, 臺北, 鼎文書局.
- 《隋書》, 臺北, 鼎文書局.
- 《舊唐書》, 臺北, 鼎文書局.
- 《新唐書》, 臺北, 鼎文書局.
- 《清史稿》, 臺北, 鼎文書局.
- 《尚書》, 《十三經注疏》本, 臺北, 藝文印書館.
- 《論語》, 《十三經注疏》本, 臺北, 藝文印書館.
- (漢) 董仲舒, 《春秋繁露》, 臺北. 世界書局, 景印摘藻堂《四庫全書薈要》246子部第1冊, 1987.
- (宋) 李昉等, 《太平廣記》,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1.
- (清) 陳夢雷編, 《古今圖書集成》, 成都, 巴蜀書社, 1985.
- 김경호, 〈《사기》·《한서》에 서술된 경제관과 그 사상적 배경〉, 《중국사구》 제 32집, 2004, 10.
- 김석우, 〈전한 元帝代 災異論과 儒敎政治〉, 동양사학회, 《동양사학연구》 제 87집, 2004.
- 김엽, 〈前漢의 外戚〉, 《대구사학》, 1969.
- 마이클 로이 지음, 이성규 옮김, 《고대 중국인의 생사관》,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박성래, 《한국과학사상사》, 서울, 유스북, 2005.
- 박시룡, 《동물행동학의 이해》, 《대우학술총서》, 서울, 민음사, 1996.
- 윤태현, 〈京房 易 의 易學史的 考察〉, 《周易哲學과 文化》 創刊號, 2003.
-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서울, 여이연, 2005.
- 이춘아, 김이선,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6.
- 정동철, 〈한대 재이설의 일고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제 4집, 1984.
- J.빅터 볼드릿지 지음, 이효재, 장하진 옮김, 《사회학: 비판사회학의 입장에서》, 서울, 경문사, 1983.
- 줄고, 〈武則天 설화에 나타난 예언과 징조〉, 《중국어문학지》 제14집, 2003, 12. 《생명과학사전》, 서울, 아카데미.
- 吳裕成, 《酉鷄有吉》,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
- 劉詠聰, 〈漢代婦人言色亡國論之發展〉, 《中華文史論叢》, 上海古籍出版社, 1992.
- 王奇偉, 〈從牝雞之晨現象看商代婦女的社會地位〉, 《殷都學刊》, 2000년 第1期.
- 王利器, 《顏氏家訓集解》,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 朱天順, 《中國古代宗教初探》, 臺北, 谷風出版社, 1986.

《Canadian Press》, “Eastern India village reports rare case of hen turning into a cock”,  
2007, 5, 24.

《Daily Mail》, “The sex-change chicken that crows”, 2006, 4, 19.

SBS, 《생방송투데이》, “수탉이 낳은 알이 있다”, 2007, 6, 21일 방송자료.

SBS, 《TV동물농장》, “아빠가 아이를 낳는 동물도 있나요?” 2008, 4, 8일 방송자료.

### 〈中文提要〉

‘牝雞之晨’這句成語，具有非常悠久的歷史。該語始於雌雞變化為雄雞的自然現象，而由雌雞變化成雄雞，在東西、古今都有相關之文獻記載，足以證明該事是生物界經常發生的一種自然現象。此一現象自周武王以降，對於其事之理解，經常用在批評女性干政。到了漢代，劉向、京房、班固等儒家學者，以「前兆」、「災異」之角度來解釋此話，‘牝雞之晨’便成為女性或是外戚干政，甚或是臣子專斷政權、篡位的一種前兆。後來這句話還被使用在一般家庭，倘若女性懷有妒嫉之心，或是主導家事時，人們往往冠之以‘牝雞之晨’來加以警誡。本文針對‘牝雞之晨’一語之由來與意義，分別從生物學的性變化現象開始探討，繼而分析漢代儒家對於其事之理解與詮釋，以及後來相關文獻對於這句話的具體認識與真正意義。

**關鍵詞：**牝雞之晨，牝雞司晨，動物前兆，災異，性變化

이 논문은 2008년 11월 21일에 접수되어 2008년 12월 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8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